전주 솔내지역주택조합 착공 눈앞

임시총회서 시공사 광신종합건설로 변경 확정 · 잔여토지 매입 목전

전주 송천동 솔내지역주택조합이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과 관련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변경이 확정되고, 잔여토지 매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전주 송천동 솔내지역주택조합(조합장 서진영)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전주시 효자동 소재 '광신 프로그레스' 모델하우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229명중 총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의결 및 추인 건'을 비롯해 '시공사 (주)광신종합건설(대표이사 이경호) 선정 건', '자금확보 추인 건'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특히 제2호 안건으로 상정된 시공사 (주)광신종합건설 선정건에서는 서면결의를 포함해 찬성 110표로 참석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시공사로 선정된 (주)광신종합건설은 올해 초 완주군에 '광신 프로그레스'라는 브랜드로 400세대를 분양했으며, 지난 6월 전주시 평화동에 뉴스테이 임대아파트 856세대를 공급한 광주소재 중견 건설업체이다.

또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주요안건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등이 통과돼 조합은 그동안 사업추진 방해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진영 조합장은 "그동안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어려웠던 이유는 부지내 미매입토지 때문이었으나 오는 9월 1일 2심 판결이 예정돼 있고, 또한 시공사인 광신종합건설의 도움으로 근시일내에 토지의 100%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잔여토지가 매입되고 간소한 행정 절차만 완료되면 조만간 착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솔내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5년 7월 사업승인과 2015년 9월 철거를 완료했다. /신광영 기자

바쁘다 바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둔 24일 오전 경기 오산시 부산동 롯데마트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늘어난 추석 선물 택배 물량을 분류하고 있다.

7월 전북수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

-34.8% 감소한 4억 8,287만달러

2016년 7월 전북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전라북도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8% 감소한 4억 8,287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감소 원인은 '정밀화학 원료' 분야의 수출관할지 변경/사업부 매각 등의 영향과 함께, 올해 들어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전년 동월 대비 -40.3%, 58백만 달러 감소)의 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북의 주요 수출 품목 중 대기업형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밀화학 원료, 자동차 및 동 부품, 선박류 등을 제외할 경우 전북의 7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2.2%로 소폭 성장했다.

1~7월 누계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0.4%의 근소한 성장세를 보였다.

전북의 1위 수출국은 미국으로 조사됐다. 수출(3.1%)이 자동차 수출 증가(89.1%)에 힘입어 성장세로 돌아섰다. 또 일본(16.0%), 인도(13.0%) 등은 7월에도 좋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에 반해 2, 3위 수출국인 중국,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각각 -46.3%, -52.0%로 감소했다.

전라북도의 7월 수입도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6% 감소한 2억 9,705만 달러로 나타났다.

또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1억 8,055만 달러 축소된 1억 8,582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실제로 상용비자 발급 및 통관 과정에 예외를 허용하던 부분이 차단되면서 대중국 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무역협회는 전북 지역 기업들이 이같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청소년 비즈쿨 특화캠프' 개최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가정신 체득위한 교육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평소 기업가정신 교육을 접할 기회가 다소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즈쿨 특화캠프'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즈쿨은 비지니스와 스쿨의 합성어(Business+School)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다.

참가 학생들은 캠프를 통해 창업아이템 개발, 기업설립, 사업계획 발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창업 과정을 모의로 경험해 봄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체득하게 된다. 캠프는 '문화교류 캠프', '학교 밖 청소년 캠프', '남북 청소년 캠프', '장애 청소년 캠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문화교류캠프는 9월 5일, 그 외의 캠프는 9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042-480-4465~6)로 문의 하면 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학생들이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키우고,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베트남공무원 새만금 견학안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지난 23일 베트남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을 소개하고 주요 현장을 안내했다.

충남글로벌리더십개발센터 주관으로 새만금 사업현장을 찾은 이들은 베트남 구청장급 공무원들로 한국의 농어촌지역개발 선진 사례를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다. 방문단은 새만금홍보관에서 국내 간척현황과 방조제 축조과정,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배수갑문 운영을 통한 홍수예방 등 복합적 용도로 개발중인 새만금 사업을 확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개발공, 연체 이자율 2.0% 인하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분양토지, 주택, 상가 및 임대아파트 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이자율을 2.0% 인하키로 했다.

23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시중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연체이자율 등 판매관련 이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하폭은 2.0%이며 종전 용지 및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과 용지에 적용되는 선납할인율 및 할부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적용기준일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일괄적용하며 용지판매에 적용되는 할부이자율은 2016년 10월 1일 이후 공급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판매관련 제이율 인하는 신규 계약자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분에도 적용이 되므로 공사와 계약한 고객들의 자금 부담이 다소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분양 자산 매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유통 대기업들, 렌탈 사업에 뛰어들어

출혈경쟁 등 부작용 우려

최근 국내 렌탈 사업에 롯데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 유통 대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들면서 기존 렌탈 전문 기업들과의 격돌이 불가피해지는 등 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소유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렌탈시장의 성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과도한 시장쟁탈전으로 업체간 제살깍아먹기 경쟁과 이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수 대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렌탈시장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롯데그룹은 KT렌탈을 인수하고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렌탈케어를 100% 자회사로 신규 설립하는 등 렌탈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백화점과 홈쇼핑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시너지를 통해 가입자를 확대, 종합 렌탈케어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재는 생활가전 제조 및 렌탈업체 동양매직을 인수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격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 11일 마감된 동양매직 매각 예비입찰에는 SK네트웍스와 현대백화점그룹, CJ그룹 등 굵직굵직한 국내 유통 대기업들이 다수 참여했다.

국내 유통 대기업들이 동양매직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까닭은 최근 렌탈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렌탈사업 특성 상 회원 수만 유지한다면 매년 안정적 영업 흐름이 가능하고, 소유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인식의 확대로 업황도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렌탈시장 규모는 렌탈사업이 가진 성장성에 힘입어 지난 2011년 19조원 수준에서 올해는 26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주요 생활가전 렌탈업체들의 누적 계정수도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코웨이 572만, 청호나이스 102만, 쿠쿠전자 80만 계정 등 총 860여만 계정이 넘었다. /뉴시스

백화점 안전불감증 170건 적발

국민안전처는 전국 백화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170건의 개선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처는 전국 백화점 81곳중 40곳을 표본으로 선정, 지난 7월21일~29일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중 20곳은 소방·전기·가스분야 전문가,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처는 최근 롯데백화점 지하상가 천정 일부가 붕괴되는 등 잠재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백화점에서 재난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백화점의 위기대응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소방 67건, 전기 36건, 가스 26건, 승강기 20건, 기타 21건 등 총 170건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중 44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했고 126건은 관계기관에 지적사항을 넘겨 개선토록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가스 시설의 경우 가스누출이나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지만 식당 가스용품의 불법개조 사용, 배관 이음부에서 가스누출 발생 및 보일러실에서 용접·절단작업 장소로 사용하는 등 위험요소가 다수 발견됐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임에도 일부 백화점은 스프링클러 압력 부족, 상품적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장애, 피난유도등 위치 부적정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했다.

또 비상대응 매뉴얼의 비현행화, 개인별 역할 미분담 등으로 재난발생시 비상대응 지연 우려와 시특법 적용되는 시설물의 정기·정밀 점검결과 중요 결함인 건물·기둥·보의 균열발생 부분의 보수작업 미실시 등의 사후관리 부실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뉴시스

본죽, 여름휴가이후 매출 급상승

본아이에프가 운영하는 본죽이 여름 휴가 시즌 이후 매출이 상승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본죽은 전국 약 1200개 매장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시즌 이후(16~22일)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주 같은 기간(9~15일) 대비 전체 매출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뉴 중에서는 전복죽이 전체 메뉴 가운데 약 23%의 판매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매출이 높은 메뉴로 꼽혔다.

이는 휴가 기간 동안 기름진 음식 섭취나 과식으로 인해 더부룩해진 속을 죽으로 달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죽은 많은 양의 물을 넣고 오래 끓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지친 속을 달래는데 효과적이다. /뉴시스